

국어 영역

제 1 교시

[1 ~ 3] 다음은 강연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수의사 ○○○입니다. 여러분들은 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수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나요? (동영상을 보여주며) 지금 보시는 것은 개의 수혈 장면입니다. 처음 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개의 혈액형과 수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혈액형을 알고 있지요? 그런데 개도 혈액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학생들의 대답을 듣고) 처음 들어 보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래프를 제시하며) 보고 계신 설문 조사 결과처럼 90%가 넘는 사람들이 개에게도 혈액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개의 혈액형은 DEA라는 용어 뒤에 숫자를 붙여 구분합니다. (도표를 제시하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의 혈액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 수혈에서 가장 중요한 혈액형은 DEA 1로 이 혈액형은 DEA 1-, 1.1, 1.2로 나뉩니다.

(그림을 제시하며) DEA 1 혈액형 간의 수혈 관계는 보시는 것처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는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끼리는 수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EA 1.2와 1.2 사이나 DEA 1-와 1- 사이는 수혈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수혈을 받는 경우라면 다른 혈액형에게서도 수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첫 수혈의 경우라도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DEA 1.1이나 1.2의 혈액형을 가진 개에게 혈액을 줄 수는 있지만 반대로 이들로부터 혈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 DEA 1 혈액형을 가진 개는 모두 첫 수혈과 달리 두 번째 수혈부터는 부작용을 고려하여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개의 수혈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낮은 편이고 혈액 공급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원활한 수혈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QR 코드를 제시하며) 지금 보여 드리는 QR 코드에 접속하시면 개의 수혈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학생들의 반응을 확인하고) 유익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개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귀한 생명입니다. 학생 여러분들도 개의 수혈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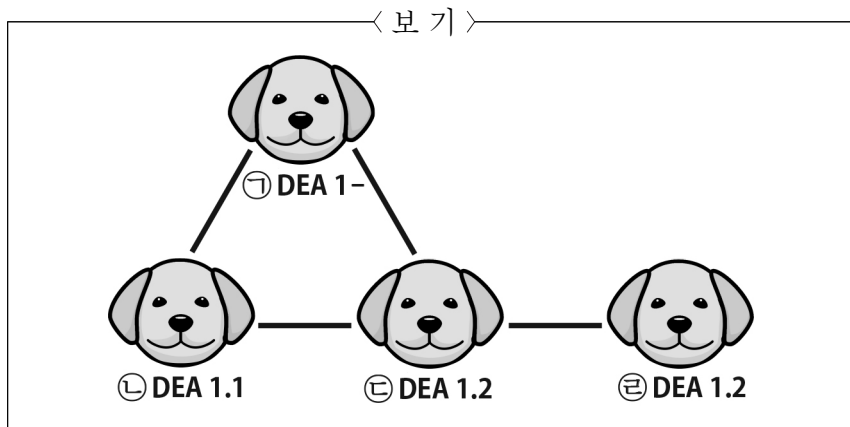
1. 위 강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전 강연 내용을 요약하며 강연의 순서를 안내하고 있다.
- ② 강연 내용과 관련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며 강연을 마무리하고 있다.
- ③ 주제와 관련된 용어의 유래를 드러내어 역사적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강연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청중의 대답을 이끌어 내는 질문을 던지며 청중과 상호 작용을 하고 있다.

2. 다음은 강연자가 강연 전에 작성한 메모이다. 강연 내용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주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해야겠어.
 - 강연의 시작 부분에서 동영상을 활용하여 개의 수혈 장면을 보여 줘야지, ①
- 개의 혈액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강조해야겠어.
 - 그래프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해야겠어, ②
- 개의 혈액형의 종류가 많으니 이를 쉽게 정리해 줘야겠어.
 - 도표를 제시하여 개의 혈액형을 사람의 혈액형과 비교하며 설명해야겠어, ③
- 개의 수혈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어.
 - 개의 혈액형 종류에 따른 수혈 가능 여부를 보여 주는 그림을 제시해야겠어, ④
- 더 궁금한 점이 있는 학생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겠어.
 - 주제와 관련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QR 코드를 제시해야겠어, ⑤

3. 위 강연을 들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첫 수혈이라면 ㉠은 ㉡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군.
- ② 첫 수혈이라면 ㉡에서 ㉢으로의 수혈은 가능하겠군.
- ③ ㉢이 이전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었다더라도 ㉡에게 수혈을 받을 수 있겠군.
- ④ 첫 수혈의 경우 ㉠에서 ㉡으로나, ㉠에서 ㉢으로의 수혈은 가능하겠군.
- ⑤ ㉠, ㉡, ㉢ 모두 두 번째 수혈을 받을 경우에는 개의 혈액형을 반드시 확인해야겠군.

[4~7] (가)는 학생들이 실시한 토론의 일부이고, (나)는 (가)에 청중으로 참여한 학생이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회자: 오늘은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한다.'라는 논제로 토론하려고 합니다. 먼저 찬성 측이 입론한 후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 1: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첫째, 별점 평가는 신뢰성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별점을 매길 때 만족도에 대한 개인의 주관이 강하게 개입되어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점 평가의 단계별 척도인 별 한 개에 부여하는 가치도 사람마다 다릅니다. 둘째, 별점 평가제는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별점 평가가 매출에 큰 영향을 주는데, 몇몇 소비자들이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이 다른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쳐 판매가 급감한 사례를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반대 2: 악의적으로 매긴 허위 별점으로 인한 판매자들의 피해 사례를 흔히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찬성 1: 지난달 ○○신문에 보도된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판매자들의 70% 정도가 악의적인 허위 별점 때문에 큰 폭의 판매량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사회자: 이번에는 반대 측이 입론한 후 찬성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해 주십시오.

반대 1: 별점 평가제는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 별점 평가제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으로 표현된 별점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별점 평가의 결과는 많은 사람의 평가가 누적된 것이므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별점 평가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별점 평가제는 이미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았습니다. 별점 평가제가 폐지되면 그러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입니다.

찬성 2: 별점 평가제가 소비자들에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자리 잡았다고 하셨는데요, 별점 평가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반대 1: 물론 다른 방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현재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별점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론 후 과제: 토론 내용을 참고하여 별점 평가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 보기

(나) 학생의 초고

나는 평소 별점 평가를 참고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음식을 주문할 때가 많아서, 별점 평가제 폐지에 관한 이번 토론이 무척 흥미로웠다. 토론 전에 나는 별점 평가제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토론을 들으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많았다. 별점 평가제가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이였다. 특히 별점 평가제를 악용하면 판매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찬성 측의 발언을 듣고 별점 평가제에 대한 생각이 ㉠ 틀려졌다.

토론이 끝나고 친구와 함께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음식에 주고 싶은 별점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요즘은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으로 별점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가 더 많다.

둘 다 맛있게 먹은 음식이지만 별점이 다른 이유가 이번 토론에서 찬성 측이 주장했던 것과 관련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 그러나 별점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다. 별점 평가가 보다 객관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별점 평가 시의 유의 사항을, 소비자를 위한 별점 평가 안내서로 제공하는 방안 등이 ㉣ 논의되고 있었다.

이런 방안 등을 통해 소비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하도록 노력하고 판매자는 별점 평가를 통한 소비자의 표현을 존중하면서 함께 별점 평가제를 보완해 나간다면, 별점 평가제는 모두에게 ㉤ 유용하고 쓸모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가)의 '입론'을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주 장	근 거
찬성	별점 평가제는 신뢰성이 떨어진다.	◦별점 평가제는 주관이 개입된다. ㉠ ◦척도에 부여하는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다. ㉡
	별점 평가제는 판매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별점 평가제는 판매자의 매출에 큰 영향을 준다. ◦악의적인 별점으로 인해 판매가 급감한 사례가 있다. ㉢
반대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다. ◦별점 평가의 결과는 직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으므로 신뢰할 수 있다. ㉣
	별점 평가제 폐지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 측 근거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한 후 추가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 ②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 측의 발언 일부를 재진술한 후 자신의 질문에 응답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③ [A]의 ‘반대 2’와 [B]의 ‘찬성 2’는 모두, 상대 측의 주장이 실현되었을 때를 가정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
 - ④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 측의 문제 제기를 일부 인정한 후 자신의 의견과 절충하고 있다.
 - ⑤ [A]의 ‘찬성 1’과 [B]의 ‘반대 1’은 모두, 상대 측이 사용한 용어의 모호성을 언급한 후 상대 측의 질문이 논제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6. 다음은 (가)를 바탕으로 (나)를 쓰기 위해 작성한 작문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1문단]
 ◦ 논제에 대한 나의 흥미를 밝히며 글을 시작해야겠어.
 ◦ 별점 평가제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밝혀야겠어.

[2문단]
 ◦ 토론을 통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점을 제시해야겠어. ①
 ◦ 토론 전에 떠올린 의문점이 해소되었음을 밝혀야겠어. ②

[3문단]
 ◦ 별점 평가제와 관련된 나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해야겠어. ... ③
 ◦ 별점 평가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해야겠어. ④

[4문단]
 ◦ 별점 평가제에 대한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해야겠어. ⑤

7. (나)의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달라졌다’로 고친다.
 - ② ㉡: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③ ㉢: 문장 간의 연결 관계를 고려하여 ‘그래서’로 고친다.
 - ④ ㉣: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을 고려하여 ‘논의하고’로 고친다.
 - ⑤ ㉣: 의미가 중복되었으므로 ‘유용한’으로 고친다.

[8~10] (가)는 작문 상황이고, (나)는 (가)를 바탕으로 쓴 학생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 건의하기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

(나) 학생의 초고

교장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서부 동아리 회장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우리 학교 도서관의 저조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 도서부에서 우리 학교 도서관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해 보니 학생 1인당 연간 대출 권수가 작년 6.8권에서 올해 4.7권으로 하락했으며, 전체 학생 중 30%는 지난 1년간 책을 한 권도 빌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도서관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만 개방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 가능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둘째, 책들이 너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정작 학생들이 읽고 싶은 책들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셋째,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도서들은 이미 대출 중인 경우가 많아서 도서관에 왔다가 원하는 책을 빌리지 못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들이 마음에 드는 책을 여유를 가지고 고를 수 있도록 방과 후에도 도서관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개방 시간에는 저희 도서부원들도 순번을 정해서 도서관 관리를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분야별로 다양한 도서 구입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중인 책들도 학생들이 읽어 볼 수 있도록 학교 도서관과 연계된 전자책 서비스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저의 건의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도서부에서도 도서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8. (가)의 작문 상황을 고려하여 (나)를 작성했다고 할 때, 학생의 초고에 활용된 글쓰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정중한 인사로 글을 시작한다.
- ②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해결 방안을 세 가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③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건의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제시한다.
- ④ 작문 목적을 고려하여 문제 상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⑤ 예상 독자를 고려하여 건의 사항과 함께 건의 주체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한다.

9. 다음은 (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1] 통계 자료

학교 도서관 이용 시 불편한 점	비율(%)
도서관에서 책을 고를 시간이 부족하다	40
원하는 책이 도서관에 없다	36
빌리고 싶은 책이 계속 대출 중이다	21
기타	3

㉠ 도서관의 주요 분야별 도서 비율

분야	권장 보유 비율	우리 학교 보유 비율
문학	25	47
과학	15	7
사회	12	8

[자료 2] 전문가 인터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전자책 이용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3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대출해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의 특징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구독형 전자책은 도서 한 권당 대출 인원 제한이 없어 수요가 많은 도서도 여러 사람이 동시에 대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의 도서관에서 이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독서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 3] 신문 기사

○○일보 ○○○○년 ○월 ○일

학교 도서관에서 나만을 위한 맞춤형 책 추천

북 큐레이션(Book-Curation) 서비스를 학교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북 큐레이션은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의 필요와 흥미에 맞는 도서를 선별하여 학생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빠르고 편리하게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① 원인 분석의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학교 도서관을 잘 이용하지 않는 세 가지 원인을 [자료 1-㉠]를 활용하여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해야겠군.
- ② 문제 상황의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 학교 도서관의 책들이 권장 보유 비율에 비해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점을 [자료 1-㉠]를 활용하여 추가로 제시해야겠군.
- ③ 해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독형 전자책의 경우 동시에 대출할 수 있는 인원 제한이 없다는 점을 [자료 2]를 활용하여 제시해야겠군.
- ④ 해결 방안을 추가하기 위해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문학 도서 위주로 추천하면 우리 학교 도서관의 분야별 도서 비율 차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자료 1-㉠]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군.
- ⑤ 해결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책과 북 큐레이션 서비스의 도입이 학생들의 시간적 제약을 줄여 주어 도서관 이용 가능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음을 [자료 2]와 [자료 3]을 활용하여 제시해야겠군.

10. ㉠을 위한 문구를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
-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직유법을 활용할 것.

- ①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좋은 책을 많이 읽읍시다.
- 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3배 더 많은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을 찾아 주세요.
- ③ 지식의 세계를 여는 열쇠와 같은 책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오늘 본 책으로 내일 더 자랄 수 있도록 도서관에 들러 보세요.
- ④ 알람 시계가 아침을 깨우듯 책은 우리의 일상을 깨워 줍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의 양식인 책을 많이 구입해서 하루를 알차게 만듭시다.
- ⑤ 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앉아서 책을 읽을 충분한 공간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책 속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운동장같이 넓은 도서관을 만들어 주세요.

[11 ~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이시옷이란 두 단어 또는 형태소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ㅅ’을 말한다.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우선, 두 단어가 결합하는 형태가 고유어와 고유어의 결합, 고유어와 한자어의 결합, 한자어와 고유어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인 경우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단일어이거나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인 파생어에는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고, 외래어가 포함된 합성어나 한자어만으로 구성된 합성어의 경우에도 사이시옷은 표기되지 않는다. 단, ‘곳간(庫間), 셋방(貰房), 숫자(數字), 차간(車間), 퇴간(退間), 횡수(回數)’라는 한자어는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합성어의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고 두 단어가 결합하여 발생하는 음운론적 현상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첫째,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경우, 둘째,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셋째,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표기할 수 있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사이시옷 표기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래웃’과 달리 ‘아랫마을’은 앞말의 끝소리에 ‘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② ‘고깃국’과 달리 ‘해장국’은 앞말이 모음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되지 않은 것이겠군.
- ③ ‘코마개’와 달리 ‘כות날’은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 ④ ‘우웃빛’과 달리 ‘오렌지빛’은 합성어를 구성하는 단어의 결합 형태를 고려하여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겠군.
- ⑤ ‘모래땅’과 달리 ‘모랫길’은 두 단어가 결합할 때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바뀌었기에 사이시옷이 표기된 것이겠군.

12.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탐구 학습지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3점]

< 보기 >

[탐구 과제]
[탐구 자료]를 활용하여 제시된 단어들의 올바른 표기를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해 보자.

○해 + 살 → () ○해 + 님 → ()

[탐구 자료]
살² 「명사」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해, 별, 불 또는 흐르는 물 따위의 내비치는 기운.

살⁻⁶ 「접사」
운전하지 못함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님⁴ 「접사」
(사람이 아닌 일부 명사 뒤에 붙어) ‘그 대상을 인격화하여 높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님⁵ 「명사」
(일부 속담에 쓰여) ‘임’을 이르는 말.

[탐구 결과]
‘해’와 ‘살’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이고, ‘해’와 ‘님’이 결합한 단어의 표기는 (㉣)입니다. 사이시옷은 합성어의 두 요소 사이에 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 결합한 경우 사이시옷을 적지 않습니다.

- | | | | |
|---|----|----|----|
| | ㉠ | ㉡ | ㉢ |
| ① | 햇살 | 해님 | 접사 |
| ② | 햇살 | 해님 | 명사 |
| ③ | 햇살 | 햇님 | 접사 |
| ④ | 해살 | 해님 | 명사 |
| ⑤ | 해살 | 햇님 | 명사 |

13. <보기>는 수업의 일부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생님: 음운 변동 중 교체가 일어날 때 앞 음절의 종성과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두 음운이 만나서 그중 하나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 뒤 음절의 초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이고, ㉡은 앞 음절의 종성 자리에 놓인 음운이 바뀌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초성 중성 종성	+	/ / /	→	/ / /	+	/ / /
㉡	초성 중성 종성	+	/ / /	→	/ / /	+	/ / /

그럼, 표준 발음에 따라 다음 단어들을 ㉠과 ㉡으로 나눠 볼까요?

먹물, 중력, 집념, 칼날, 툽밥

- | | |
|---------------------|------------|
| ㉠ | ㉡ |
| ① 먹물, 칼날 | 중력, 집념, 툽밥 |
| ② 중력, 집념 | 먹물, 칼날, 툽밥 |
| ③ 먹물, 집념, 툽밥 | 중력, 칼날 |
| ④ 먹물, 중력, 집념 | 칼날, 툽밥 |
| ⑤ 중력, 칼날, 툽밥 | 먹물, 집념 |

14.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1 >

주체 높임법은 문장의 주어인 서술의 주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서술의 객체에 대하여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과 객체 높임의 대상은 문장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한다. 한편, 상대 높임법은 화자가 청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한 문장 안에서 다양한 높임법이 쓰일 수 있다.

< 보기 2 >

<아들과 아버지의 통화>
아들: ㉠ 아버지, 집에 언제 도착하시나요?
아버지: 무슨 일 있니?
아들: ㉡ 할머니께서 아버지께 전화해 보라고 하셨어요. ㉢ 아버지께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아버지: 그래, 거의 다 왔으니 집에 가서 얘기하자. 그런데 할머니 아직 안 주무시니?
아들: ㉣ 아직 안 주무셔요. ㉤ 방금 어머니께서 할머니 모시고 나가셨어요.

- ① ㉠은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②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③ ㉢는 객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같다.
- ④ ㉣는 주체 높임과 상대 높임의 대상이 다르다.
- ⑤ ㉤는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의 대상이 모두 다르다.

15.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ㄱ. 羅睺羅(라후라) | 得道(득도)하야 도라가사 어미를 濟渡(제도)하야
(라후라가 득도하여 돌아가서 어미를 제도하여)

ㄴ. 瞿曇(구담)의 오솔 니브샤 深山(심산)에 드러 果實(과실)와 물와 좌시고
(구담의 옷을 입으시어 깊은 산에 들어 과일과 물을 자시고)

ㄷ. 南廬(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싹를 길어 내니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蓮花(연화) | 나느니이다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ㄹ. 네가짓 受苦(수고)는 生(생)과 老(로)와 病(병)과 死(사)왜라
(네 가지 괴로움은 태어남과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다.)

- ① ㄱ의 ‘羅睺羅(라후라) |’와 ㄷ의 ‘仙人(선인)이’에는 주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다르게 사용되었군.
- ② ㄱ의 ‘어미를’과 ㄷ의 ‘싹를’에는 목적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의 형태가 서로 동일하게 사용되었군.
- ③ ㄴ의 ‘瞿曇(구담)의’와 ㄷ의 ‘南廬(남굴)스’에는 모두 관형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④ ㄴ의 ‘深山(심산)에’와 ㄷ의 ‘時節(시절)에’에는 모두 부사어의 자격을 부여해 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 ⑤ ㄴ의 ‘果實(과실)와’와 ㄹ의 ‘病(병)과’에는 모두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조사가 사용되었군.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가족을 찾아 헤매던 ‘손’은 물이 찬 포구에 산봉우리가 비치는 모습이 학이 날아오르는 듯하여 이를 붙여진 선학동에 도착한다. ‘손’은 우연히 찾은 주막의 주인 사내에게서 소리꾼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손은 아직도 여자와 자신의 인연에 대해선 분명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학이 날지 못하는 선학동에 아버지의 유골을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 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고 있었다. 주인은 그것으로 모든 일이 분명해진 것 같았다. 그리고 그것으로 만족한 것 같았다.

그가 다시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아니, 노형은 아까 내 얘길 잊었구만요. 여자가 한 일은 부질 없는 것이 아니었어. 여자가 간 뒤로 이 선학동엔 다시 학이 날기 시작했다니께요. 여자가 이 선학동에 다시 학을 날게 했어요. 포구 물이 막혀 버린 이 선학동에 아직도 학이 날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그 눈이 먼 여자였으니 말이오…….”

주인은 이번야말로 선학동에 다시 학이 날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그러자 여자는 정작으로 그 비상학을 좇듯이 보이지도 않는 눈길로 별판 쪽을 한참이나 더듬어대었다. 그러다 비로소 채비

가 제법 만족스러워진 노인 쪽을 돌아보며 비탄조로 말했다.

“아배의 소리는 그러니께 그 시절에 늘 물 위를 날아오른 학과 함께 노닐었답니다.”

주인 사내로선 갈수록 예사롭지 않은 소리들이었다. 눈 아래 들판엔 이제 물도 없고 산그림자도 없었다. 게다가 여자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소망처럼 그 물이나 산그림자의 형용을 깊이 눈여겨보았을 리 없었다. 하지만 여자는 이제 눈을 못 보기 때문에 오히려 성한 사람이 볼 수 없는 물과 산그림자를 보고 있는지도 몰랐다. 두 눈이 성해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라붙은 들판에서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볼 리가 없었다. 있지도 않은 물과 산그림자를 본 것은 그녀가 오히려 앞을 못 보는 맹인이기 때문이었다.

사내의 그런 상상은 차츰 어떤 불가사의한 믿음으로 변해 갔다.

망망창해에 탕탕(蕩蕩)한 물결이라
백빈주 갈매기는 흥요안에 날아들고……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내는 그 여자의 오장이 끓어오르는 듯한 목소리 속에 문득 자신도 그것을 본 것이다. 사립에 기대어 눈을 감고 가만히 여자의 소리를 듣고 있자니 사내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잊혀져 온 옛날의 그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여자의 소리가 길게 이어져 나갈수록 선학동은 다시 옛날의 포구로 바닷물이 차오르고 한 마리 선학이 그곳을 끝없이 노닐기 시작했다.

그런 일이 있던 후로 사내는 여자의 학을 믿지 않을 수 없었다. 여자는 날마다 밀물 때를 잡아서 소리를 하였다. 소리는 언제나 이 **선학동을 옛날의 포구 마을로 변하게** 하였고, 그 포구에 다시 선학이 유유히 날아오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다 여자는 어느 날 밤 문득 선학동을 떠나갔다.

㉠ **하지만 사내는 여자가 그렇게 선학동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소리가 여전히 귓전을 맴돌고 있었다. 그 소리가 귓전을 울려 올 때마다 선학동은 다시 포구가 되었고, 그녀의 소리는 한 마리 선학과 함께 물 위를 노닐었다. 아니 이제는 그 소리가 아니라 여자 자신이 한 마리 학이 되어 선학동 포구 물 위를 끝없이 노닐었다.**

그래 사내는 이따금 말했다.

“여자는 어디로 떠나간 것이 아니며. 그 여자는 이 **선학동의 학이 되어 버린** 거여.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단** 말이여.”

여자가 그토록 갑자기 마을을 떠나가 버린 데 대한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주막집 이웃들이나 별판 건너 선학동 사람들마저 사내의 그런 소리엔 그리 허물을 해 오는 눈치가 없었다. 선학동 사람들은 여자가 모셔온 아버지의 유골을 모른 체해 주듯 여자가 그렇게 주막을 떠나가고 나서도 그녀의 사연이나 간 곳을 굳이 묻고 드는 일이 없었다. 뿐더러 주막집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지껄여대도** 그러는 사내를 탓하려 들기는커녕 오히려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곤** 하였다.

손은 이제 완전히 녹초가 되어 버린 표정이었다. 이따금 손을 가져가던 술잔마저 이제는 전혀 마음에 없는 모양이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난 주인 쪽 역시 마찬가지였다. ㉡ **가슴 속에 지녀 온 이야기들을 손 앞에 모두 털어놓은 것만으로** 주인은 이제 자기 할 일을 다해 버린 사람 같았다. 손이 뭐라고 대꾸를 해 오든 안 해 오든 그로서는 전혀 개념을 할 일이 아니라는 태도였다.

주인은 완전히 손의 반응을 무시하고 있었다. 뒷산 고개를 넘

어오는 솔바람 소리가 아직도 이따금 두 사람의 귓전을 멀리 스쳐가고 있었다. 그 솔바람 소리에 멀리 독 너머 바닷물 소리가 섞이는 듯하였다.

㉠ 침묵을 견디지 못한 건 이번에도 결국 손 쪽이 먼저였다.
“주인장 이야긴 고맙게 들었소.”

이윽고 손이 먼저 주인에게 말했다. ㉡ 그의 어조는 이제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낮고 차분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 가운데서 주인장께선 일부러 사람을 하나 빠뜨려 놓고 있었지요.”

주인이 달빛 속으로 손을 이윽히 건너다보았다.

손이 다시 말을 이었다.

“주인장 어렸을 적에 이 마을에 찾아들었다는 그 소리꾼 부녀의 이야기 말이오. 그때 그 어린 계집아이에게 **소리 장단을 잡아 주던 오라비**가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장께선 일부러 그 오라비 이야길 빼놓고 있었지요.”

추궁하듯 손이 주인의 얼굴을 마주 바라보았다. ㉢ 주인도 이제 더 사실을 숨길 것이 없다는 듯 고개를 두어 번 깊이 끄덕여 보였다.

“그렇지요. 난 그 오라비가 뒷날 늙은 아비와 어린 누이를 버리고 혼자 도망을 쳤다는 이야기까지도 여자에게 다 듣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담 주인장은 그 오누이가 서로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남남 한가지 사이란 것도 알고 있었겠구만요. 그리고 그 어린 오라비가 부녀를 버리고 떠난 것은 차마 그 원망스런 의붓아비를 죽여 없앨 수가 없어서였다는 것도 말이오.”

주인이 다시 고개를 무겁게 끄덕여 보였다.

- 이청준, 「선학동 나그네」 -

1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회상을 통해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고 있다.
- ② 풍자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다.
- ③ 반어적 표현을 통해 집단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동시에 진행되는 여러 사건을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장면마다 서술자를 달리하여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17.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손은 여자의 오라비가 가족을 떠난 이유를 주인 사내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 ② 여자는 이전에 온 적이 있는 선학동으로 다시 찾아와서 아비의 유골을 묻었다.
- ③ 여자는 선학동에 다시 돌아온 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있다.
- ④ 주인 사내는 여자의 소리를 들으며 잊고 있었던 비상학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 ⑤ 주인 사내는 여자와 오라비가 아비의 피를 나누지 않은 오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인상적이었던 과거의 사건을 잊지 못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② ㉡: 하고 싶었던 행동을 마치고 난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③ ㉢: 상대방과 이야기를 더 이어가고자 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④ ㉢: 자신의 속마음을 상대방에게 들려 당혹감을 느끼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의 의도를 알아차린 상대방의 말에 수긍하는 인물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는 삶의 아픔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한다.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픔을 지닌 ‘손’은 ‘여자’를 찾아다니는 행위를 통해,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여자는 소리를 통해 각자 자신이 지닌 삶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예술적 경지에 다다른 여자의 소리는 마을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 ① ‘아비의 유골을 묻고 간 여자의 일을 제 일처럼 못내 안타까워하는 ‘손’의 모습에서 가족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손’의 아픔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여자가 마침내 소리를 시작’했을 때 ‘비상학이 서서히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기 시작’했다고 느끼는 ‘사내’의 모습에서 ‘여자’의 소리가 예술적 경지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여자가 ‘선학동을 옛날의 포구 마을로 변하게’ 하고 선학동을 떠나지 않으며 ‘소리 장단을 잡아 주던 오라비’를 기다린 것에서 삶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여자가 ‘선학동의 학’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이 고을 하늘을 떠돈’다고 ‘사내’가 이따금 말하는 모습에서 ‘여자’의 소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사내’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사내가 이따금 그렇게 앞도 뒤도 없는 소리를 지껄여대’도 선학동 사람들이 ‘그와 어떤 믿음을 같이하고 싶은 진중한 얼굴들이 되곤’ 했다는 것에서 ‘여자’의 소리가 마을 사람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겠군.

22.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도 없다.
- ② 보험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나 보험 기간 중 보험가액은 바뀌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③ 보험가액은 보험금의 액수가 이득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 ④ 보험가액은 객관적인 금전적 가치 평가에 의해, 보험금액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해 정해진다.
- ⑤ 보험자가 일정한 보험금액을 약정했다라도 보험 사고 발생 시 항상 보험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 <보기>는 뒷글과 관련된 상황이다. 23번과 24번 물음에 답하십시오.

< 보 기 >

갑은 2년 전 시가 1,000만 원의 건물 X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당시 ㉠ X에 대하여 보험사 A와 보험금액을 6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 같은 건물에 대하여 보험사 B와 보험금액 400만 원의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그 뒤 X의 시세가 하락해 현재 평가액은 800만 원이다.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의 보험금액과 보험료는 모두 가입 당시와 달라지지 않았다. (단, 갑이 가입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모두 갑 본인이다. 모두 계약일이 같으며 보험 기간은 5년이다.)

23. 뒷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의 ㉠과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과 ㉡는 보험의 목적과 보험 사고가 동일하고, 보험자는 서로 다른 손해보험이겠군.
- ② ㉠과 ㉡의 보험금액의 합계는 가입 당시와 달리 현재는 보험가액과 일치하지 않겠군.
- ③ 보험계약 후 건물 시세가 하락하였지만 ㉠과 ㉡ 중 어느 것도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되지 않겠군.
- ④ 계약에서 정한 보험 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면, ㉠과 ㉡의 피보험자인 갑은 A와 B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겠군.
- ⑤ 갑이 ㉠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의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변동을 근거로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었겠군.

24. 다음은 <보기>와 관련한 보험 사고 상황이다. 뒷글을 참고할 때

㉠~㉢에 들어갈 금액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건물 X에 화재가 일어나 50%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에 갑은 보험사 A와 B에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A는 보험계약에서 실제 약정한 (㉠)의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 그런데 다른 보험사와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A는 각 보험사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갑에게 (㉡)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역시 연대 책임을 질 의무가 있는 B는 (㉢)을 갑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X의 평가액은 현재 기준으로 산정되었다.

	㉠	㉡	㉢
①	300만 원	240만 원	160만 원
②	30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③	600만 원	240만 원	160만 원
④	60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⑤	80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1
발돋움하는 발돋움하는 너의 자세는
왜 이렇게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져야 하는가,

그리움으로 하여
왜 너는 이렇게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야 하는가,

2
모든 것을 바치고도
왜 나중에는
이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져야 하는가,

네가 네 스스로에 보내는
이별의
이 안타까운 눈짓만을 가져야 하는가.

3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

떨어져서 부서진 무수한 내가
왜 이런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아야만 하는가,

- 김춘수, 「분수」 -

(나)
잘 빗어진 **찾잔**을 들여다본다
수없이 실금이 가 있다
마르면서 굳어지면서 스스로 제 살을 조금씩 벌려
그 사이에 **뜨거운 불길**을 붙어 넣었으리라
엄히고설킨 그 **틈** 사이에 바람이 드나들고
비로소 **찾잔**은 그 숨결로 살아 있어

[A]

그 **틈**, **사이**들이 실뿌리처럼 **찾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게다
틈 사이가 고울수록 깨어져도 **찾잔**은 날을 세우지 않는다
미리 제 몸에 새겨놓은 돌아갈 길,
그 보이지 않는 작은 **틈**, **사이**가
찾물을 새지 않게 한단다

[B]

잘 지어진 **콘크리트 건물** 벽도
양생되면서 제 몸에 수 없는 실핏줄을 긋는다
그 미세한 **틈**, **사이**가
차가운 눈바람과 비를 막아준다고 한다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이 거기서 나온단다
끊임없이 서로의 중심에 다가서지만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그대와 나
그 **틈**, **사이**까지가 하나였음을 알겠구나

[C]

하나 되어 깊어진다는 것은
수많은 실금의 **틈**, **사이**를 허용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네 노여움의 불길과 내 슬픔의 눈물이 스며들 수 있게
서로의 속살에 실뿌리 깊숙이 내리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복효근, 「틈, 사이」 -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수미상관의 방식을 통해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명사형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후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26.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기 〉

이 작품은 인간 존재의 본질적 운명을 '분수'의 속성을 통해 드러낸다. 화자는 상승과 추락을 반복하는 분수를 통해 자기 극복과 좌절에 대해 이야기한다. 화자는 분수를 자신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초월 의지를 지닌 존재로 인식하며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모습을 순환성의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① '너'가 '발돋움하는' 것과 '두 쪽으로 갈라져서 떨어'어지는 것에서 상승하고 추락하는 분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그리움으로 하여'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지는 것에서 자신의 속성을 초월한 분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③ 분수가 '모든 것'을 바치고도 '찢어지는 아픔'만을 가지는 것에서 자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좌절하는 분수의 속성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④ '왜 너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가'라는 의문에서, 현실의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분수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떨어져서 부서진' 분수가 '선연한 무지개'로 '다시' 솟는다는 것에서 운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전을 지속하는 순환성의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겠군.

27. (나)의 [A] ~ [C]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틈 사이'는 '찾잔'이 '뜨거운 불김'을 견디고 생명력을 지닌 존재로 거듭날 수 있게 해 준다.
- ② [B]의 '틈, 사이'는 '콘크리트 건물'을 외부의 시련으로부터 막아 주는 역할을 한다.
- ③ [A]의 '틈, 사이들'이 '찾잔의 형상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C]의 '틈, 사이'는 그대와 나를 '하나 되어 깊어진' 관계로 만들어 준다.
- ④ [B]의 '틈, 사이'가 '진동과 충격을 견디는 힘'의 근원이 되듯, [C]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는 '슬픔'과 '눈물'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화자의 인식이 확장되고 있다.
- ⑤ [A]와 [B]에서 외부의 대상을 향했던 화자의 시선이 [C]에서 인간관계의 '틈, 사이'로 향하면서 '벌어진 틈, 사이 때문에 가슴 태우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

[28 ~ 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양전자 단층 촬영(PET)은 세포의 대사량 등 인체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몸속에 특정 물질을 ㉠ 주입하여 그 물질의 분포를 영상화하는 기술이다. 이때 대사량이란 사람의 몸속 세포가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에너지의 총량으로 정상 세포와 비정상 세포는 대사량에서 차이가 난다.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하여 이들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PET를 통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몸속에 방사성추적자를 주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PET에 사용되는 방사성추적자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결합한 포도당 성분의 특정 물질로 이는 특정한 원소 또는 물질의 이동 양상을 알아내기 위해 쓰인다. 이렇게 주입된 방사성추적자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포도당과 유사하기 때문에, 대사량이 높아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 세포에 다량 흡수된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흡수된 방사성추적자는 일반 포도당과 달리 세포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일정 시간 동안 세포 안에 머무른다.

세포 내에 축적된 방사성추적자의 방사성 동위원소는 붕괴되면서 양전자를 ㉡ 방출한다. 방출된 양전자는 몸속의 전자와 결합하여 소멸하는데, 이때 두 입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뀐다. 이 에너지는 180도 각도를 이루는 한 쌍의 감마선으로 방출되어 몸 밖으로 나온다.

몸 밖으로 나온 감마선은 PET 스캐너를 통해 검출되는데,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가 검사 대상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다. 180도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은 각각의 진행 방향에 있는 검출기에 ㉢ 도달하게 된다. 이때 한 쌍의 감마선이 도달한 검출기의 두 지점을 잇는 직선을 동시검출응답선이라고 하며 감마선의 방출 지점은 이 선의 어느 한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 쌍의 감마선이 각각의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에는 미세한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는 몸의 어느 지점에서 감마선이 방출되었는지에 따라 검출기까지의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감마선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위해서는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PET 스캐너의 검출기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데 이 경우를 동시계수라고 한다. 하지만 ㉣ 한 쌍의 감마선이 완전히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PET 스캐너는 동시계수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시간폭인 동시계수시간폭을 설정하고 동시계수시간폭 안에 들어온 경우를 유효한 성분으로 ㉤ 간주한다.

그런데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한 한 쌍의 감마선 즉 동시계수 중에서도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우선 감마선이 주변의 물질과 상호 작용을 일으켜 진행 방향이 바뀌면서 검출기에 도달하는 시간의 변화가 생겼으나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검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산란계수라고 한다. 다음으로 한 지점에서 방출된 두 개의 감마선 중 한 개의 감마선만이 검출기로 도달할 때, 다른 지점에서 방출된 한 개의 감마선과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랜덤계수라고 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실제 감마선이 방출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ET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즉, 한 지점에서 방출된 한 쌍의 감마선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는 참계수만이 유효한 영상 성분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PET 영상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산란계수와 랜덤계수의 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시계수시간폭을 적절하게 **㉔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PET는 특정 물질과 비정상 세포의 반응을 이용한다.
- ② PET에서 동시검출응답선은 직선의 형태로 표현된다.
- ③ PET 스캐너는 감마선을 방출하여 PET 영상을 만든다.
- ④ PET는 인체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화 기술이다.
- ⑤ PET 스캐너는 수많은 검출기로 이루어진 원형 구조이다.

29. 방사성추적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정상 세포 내에 다량으로 흡수되어 축적된다.
- ② 세포의 대사량을 평소보다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
- ③ 일반 포도당과 유사하지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 ④ 특정 물질의 이동 양상을 밝히기 위해 사용되는 화합물이다.
- ⑤ 양전자를 방출하며 붕괴되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결합된 물질이다.

30. ㉑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출된 감마선이 180도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이다.
- ② 양전자와 전자의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 ③ 한 쌍의 감마선이 동시에 검출기에 도달하면 동시계수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④ 한 쌍의 감마선 중 하나의 감마선만이 PET 영상의 유효한 성분이 되기 때문이다.
- ⑤ 감마선 방출 지점에 따라 두 감마선이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31.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구분	A	B	C
검출기에 도달한 두 감마선의 시간 차	5ns	7ns	10ns

○ A ~ C는 모두 동시계수시간폭을 12ns로 설정한, 동일한 PET 스캐너로 감마선을 검출한 경우이고 ■는 감마선의 방출 지점을 나타낸다.
○ ns는 시간 단위로 10억분의 1초를 나타낸다.

- ① A의 경우 한 쌍의 감마선이 주변 물질과 상관없이 도달했다면, 참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B의 경우 한 감마선의 진행 방향이 바뀌었지만 동시계수시간폭 내에 도달하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C의 경우 PET 영상에 유효한 성분이 될 수 없는 랜덤계수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A와 B의 경우 동시계수시간폭이 8ns이었다면, 산란계수는 검출되지 않았겠군.
- ⑤ B와 C의 경우 실제 감마선의 방출 지점이 동시검출응답선 위에 존재하지 않았겠군.

32. ㉑ ~ ㉓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흘러 들어가도록 부어 넣다.
- ② ㉒: 입자나 전자기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내보내다.
- ③ ㉓: 목적인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
- ④ ㉑: 유사한 점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다.
- ⑤ ㉓: 새로 만들어 정해 두다.

[33 ~ 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소저는 양경의 계략으로 전쟁에 나가게 된 정원수를 그리워하며 힘든 나날을 보낸다. 이때 민가를 잠행하던 태자가 우연히 정소저를 보게 되고, 그녀의 아름다움과 기상에 반하여 그녀를 아내로 삼겠다고 결심한다.

정소저 시비를 데리고 관음사로 행하거늘 태자 또한 **여복(女服)으로 갈아 입고** 시비를 데리고 이날 **관음사로 찾아가니** 모든 스님들이 합장하며

“소저는 누구 집 행차이온지 알지 못하겠거니와 이런 누지(陋地)에 왕립하셨습니까?”

하니, 시비 답하기를

“**주상공 댁 소저**인데 부친께서 임지로 가셔서 안위를 위하여 발원코자 왔나이다.”

하니, 노승이 말하기를

“정강로댁 소저도 부친의 안위를 위하여 왔거니와 소저와 같은 딱한 사연이 있나이다.”

하니, 주소저 짐짓 탄식하며 말하기를

“그 소저의 정도가 나와 같도다.”

하며, 슬퍼하니 노승이 위로하기를

“주소저와 정소저 다 같이 발원코자 왔다 하니 함께 발원함이 좋겠습니다.”

하고, 정소저를 보고 주소저의 사연을 설명하고 서로 생면함을 간청하니 정소저 듣고 말하기를

“세상에 또한 나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며,

“나도 딱한 사정을 듣고 서로 보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고자 합니다.”

하였다. 노승이 반기며

“주소저의 사연도 같으니 지성으로 발원하여 소원을 이루소서.”

하고, 즉시 불전에 나아가 분향하고 주소저를 청하여 각각 시비를 데리고 좌정하였다. 잠시 후 주소저 눈을 들어 정소저를 살펴보니 **탁월한 풍채와 늙름한 기상**이 사람의 정신을 놀라게 하였다.

주소저 이르기를

“노승의 말씀을 들으니 남자의 심정이 나와 같습니다. 부친이 전장에 가서 소식이 적조하옵기로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불전에 발원하여 부친을 위로하고자 왔나이다.”

하니, 정소저 탄식하며 말하기를

“제 팔자가 기구하여 열 살 전에 모친을 이별하고 다만 부친만 바라고 지냈더니 **항명(降命)***이 지중하여 부친은 전장에 가시고 실로 몸이 의지할 곳이 없사와 불전에 지성으로 발원하와 부친께서 입성하여 쉬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고, **서로 슬픈 정회를 위로**하였다. 주소저 같이 앉으면 소저 **옥수를 잡고** 만난 정회를 설하는 듯하되 정소저 조금도 싫어하는 거동이 없었다.

이러구러 황혼이 되어 옥탕에 목욕하고 불전에 나가 빌기를

“분명 정남자와 배필이 되게 하시려거든 이 금전이 방중에 내려오소서.”

하며, 돈을 던지니 빈 공중에 솟았다가 방 가운데로 떨어졌다. 주소저가 신통히 여겨 또 금전을 잡고 축원하며 말하기를

“**황상께서 양경의 딸로 간택**하였으니, 만일 양 씨를 퇴할 수거든 금전이 스스로 방 밖에 내려지게 하소서.”

하고, 금전을 던지니 금전이 여러 번 돌다가 문 밖에 내려지는지라. 주소저 신기하게 여기던 차 정소저 또한 다가와 금전을 던지

며 축원하기를

“부친께서 전장에 나가 성공하고 쉬이 돌아오시게 하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소서.”

하고, 금전을 던지니 이 금전이 방문 밖으로 내려가는지라. 또다시 축원하고 재배하여 독축하기를

“이 몸이 비록 **여자이오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하였사오니 부친을 위로하려 전장에 나아가 선전(善戰)*하려 하시거든 금전이 방중에 내려지소서.”

하고, 금전을 던지니 금전이 높이 올랐다가 방중에 내려오는지라. 소저 한편 기뻐하며 독축하기를

“이후로는 다시 험한 일이 없고 심중에 먹은 마음대로 되게 하시려거든 금전이 방중에 떨어지소서.”

하고, 던지니 금전이 다시 방중에 떨어지는지라. 소저 일희일비하여 물러나오니 주소저 이르기를

“**동전 축사(祝辭)**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길흉이 상반되는 것 같소이다.”

주소저가 다시 위로하며

“이는 다 팔자이오니 너무 실망하지 마옵소서.”

하니, 정소저 말하길

“우리 피차 함께 하였으니 대강 말씀을 통하게 되었거니와 저는 그렇다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들어보니 부친께서는 만리 전장에 가시고 단 한 몸 의지할 곳이 막연하오니 가련하고 애연하지 아니하오리까?”

하며, 서로 위로하더니 한 노승이 마침 들어오시며 말하기를

“정원수 전장에서 패했다는 소식이 왔으니 이 난국이 큰 근심이로다.”

(중략)

이때, 정원수 여러 달 적진 중에 있어 명이 경각에 있었다니 안남국 황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즐거워 이르기를

“이제 이 사람 고향에 돌아가 우리 황상을 뵈옵고 조상 향화를 받들고 정녕 그리던 자식을 보겠도다.”

하는데, 밖에 한 **장수** 찾아와 원수를 기다리더라. 나와 보니 **소년**이 대하며 앞에 와 재배하고 뵈거늘 정원수 백수(白首) 풍진에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며 소년에게 이르기를

“소장은 재주 용렬하여 대공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황상을 생각하니 어찌 한심치 아니하며 생전에 고향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었더니 천만으로 장군의 구조함을 입어 **종명(終命)***을 보존하여 본국에 돌아가 부모와 자식을 상봉하게 하니 그 은혜를 어찌 만분의 일이나마 갚으리오.”

하며, 양 불에 흐르는 눈물을 그치지 못하거늘 소저 그 말씀을 듣고 일희일비하여 좌우를 물리치고 붙들고 대성통곡하며 말하기를

“여식 정모는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잠깐 남자 되어 적진을 진정시키고** 그 간에 그리던 부친 일시도 그냥 있을 수 없어 불초하나마 부친을 위하고자 하였사오니 부친은 안심하옵소서.”

하고, 소저도 눈물을 금치 못함이 그지없으니 정원수 그 말을 듣고 대경 질색하여 한참 말을 못하다가 정신을 진정하여 다시 보니 비록 남자 의복으로 **환역(換易)**하였으나 얼굴이 분명한지라.

- 작자 미상, 「정비전」 -

* 항명: 임금 혹은윗사람에게 받은 명.

* 선전: 있는 힘을 다하여 잘 싸움.

* 종명: 남은 수명.

33.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언어유희를 사용하여 시대의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배경 묘사를 통해 인물의 내면 심리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과장하여 해학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34.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는 낙관적인 미래에 대한 확신이, [B]에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타나 있다.
- ② [A]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해결한 주체가, [B]에는 인물 간의 갈등을 유발한 주체가 나타나 있다.
- ③ [A]에는 자신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체념이, [B]에는 상대가 처한 어려움에 대한 공감기가 나타나 있다.
- ④ [A]에는 특정 인물과의 재회를 바라는 이유가, [B]에는 특정 인물과의 재회가 가능해진 이유가 나타나 있다.
- ⑤ [A]에는 기대가 실현된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경이, [B]에는 기대가 어긋나 버린 상황에 대한 인물의 심경이 나타나 있다.

35. 다음은 동전 축사(祝辭)를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동전을 던지는 인물	알고 싶은 내용	동전의 위치	
			방중	방밖
㉠	주소저	정낭자와 배필이 될 수 있는가?	○	
㉡	주소저	간택된 양 씨를 퇴할 수 있는가?		○
㉢	정소저	부친이 전장에서 성공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는가?		○
㉣	정소저	전장에 나아가 선전할 수 있는가?	○	
㉤	정소저	이후 험한 일 없이 마음 먹은 대로 일이 될 수 있는가?	○	

- ① ㉠에서 '동전을 던지는 인물'은 '동전의 위치'를 보고 자신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군.
- ②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꺼리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겠군.
- ③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었겠군.
- ④ ㉣에서 '알고 싶은 내용'은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하고자 하는 행동과 관련이 있겠군.
- ⑤ ㉤에서 '동전의 위치'는 '동전을 던지는 인물'이 바라는 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군.

36.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고전소설에서 '복장전환'이라는 화소는 주체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인물의 의지를 보여 준다. 복장전환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쓰이는데 이를 통해 인물들은 다양한 욕구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 작품에서는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때로는 이성과 교우를 맺기 위해 복장전환이 사용된다.

- ① 태자가 '여복으로 갈아 입'고 정소저를 뒤따라 '관음사로 찾아가'는 것에서, 애정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선택한 인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태자가 자신을 '주상공 댁 소저'로 속이고 정소저와 '서로 슬픈 정회를 위로'하며 '옥수를 잡'을 수 있었던 것에서 복장전환이 이성과의 교우를 가능하게 해 주는 수단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주소저가 '탁월한 풍채와 늠름한 기상'을 지닌 정소저를 보고 놀라는 것에서 정소저가 자신의 실체를 상대에게 숨기는 수단으로 복장전환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여자이오나 어릴 적부터 병서를 공부'했다고 한 정소저가 '남자 되어 적진을 진정시켰'다고 하는 것에서 복장전환을 한 인물이 자신의 사회적 한계를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정소저가 '부친의 위급함을 듣고' '소년' '장수'가 되었다는 것에서 인물이 위기 국면에서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복장전환을 선택했음을 확인할 수 있군.

[37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토마스 아퀴나스의 설명은 인간의 사랑인 아모르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다. 그는 인간이 선을 추구하려는 욕구를 지닌 존재인데, ㉠ 욕구를 추구하는 인간 행위의 원천이 바로 사랑이라 말한다. 이때 선이란 자신에게 좋은 것으로 자신의 본성에 적합하거나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뜻한다.

아퀴나스에 ㉡ 따르면 인간의 욕구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되는데, 이는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는 대상에 의해 촉발되어 이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반면 지적 욕구에 의한 추구행위는 지성의 능동적인 활동과 주체의 선택에 의해 일어나는 보다 적극적인 것이다. 둘째, 감각적 욕구는 감각적 인식능력에 의해 선으로 인식된 것을 추구하는 반면, 지적 욕구는 지성에 의해 선으로 이해된 것을 추구한다. 왜냐하면 감각적 인식능력은 대상의 선악 판단에 개입할 수 없지만, 지성은 대상이 무엇이든 이해한 바에 따라 선악 판단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단맛이 나에게 기쁨을 준다면 감각적 욕구는 사탕을 추구하겠지만, 지적 욕구는 사탕이 충치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선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고 말하며, 사랑이 선을 향한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

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일으키는 힘이라고 설명한다. 특히, 아퀴나스는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를 '정념'이라고 칭하며,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정념은 없으며 선을 향한 사랑에서부터 여러 정념이 비롯된다고 하였다. 만약 여러 대상에 대한 감각적 욕구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인간은 가장 먼저 추구할 감각적 욕구를 지성에 의해 판단하고 선택한다. 다른 것보다 더 선이라고 이해된 것을 우선 추구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퀴나스가 말하는 인간의 사랑은 선에 대한 자신의 이해에 입각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

(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과 실천적 차원의 사랑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같이 인간의 경향성에 근거한 사랑이며,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의무로서의 사랑이라 할 수 있다.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보다는 실천적 차원의 사랑에 더 주목하고 가치를 부여한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법칙을 실천하려고 하는 선의지를 지닌 존재이다. 여기서 선의지란 선을 지향하는 의지로 그 자체만으로 조건 없이 선한 것이다. 그는 인간이 도덕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칸트에게 의무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어떤 행위를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때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며, 칸트는 선의지에 따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실천하는 것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칸트의 관점에서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욕구나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리는 감정이기 때문에, 의무로 강제하거나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는 어떤 경향성과도 무관하거나 심지어 경향성을 거스르지만, 도덕법칙을 ㉠ 따르려는 의무로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이 참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그리고 실천적 차원의 사랑만이 보편적인 도덕법칙으로 명령될 수 있으며, 인간에 대한 실천적 차원의 사랑은 모든 인간이 갖는 서로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

37.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며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이론의 장단점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두 가지 관점을 절충하며 하나의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학자의 견해가 지닌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3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선을 추구한다.
- ② 인간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③ 감각적 욕구와 지적 욕구로 구별된다.
- ④ 감각적 욕구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 ⑤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는 정념이라 부른다.

39. (가)와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갑은 잠에서 깨어나 방안 가득한 카레 냄새를 맡고 카레가 먹고 싶어져 식탁으로 갔다. 그런데 오늘 예정된 봉사활동에 늦지 않기 위해 카레를 먹지 않기로 하고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카페에 들렀더니 진열장에 시원한 생수와 맛있는 케이크가 있었다. 그것들을 보니 목도 마르고 배도 고팠지만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후, 케이크를 주문해 먹었다. 그러다 갑은 카페에 들어오는 이성인 을의 미소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 평소 갑은 부끄러움이 많았지만 용기를 내어 을에게 다가갔다.

- ①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가 먹고 싶어진 것은 카레 냄새에 의해 촉발된 감각적 욕구에 의한 추구 행위이겠군.
- ②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카레를 먹지 않은 것은 지성이 카레를 먹는 것을 선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군.
- ③ 아퀴나스에 따르면, 갑이 생수와 케이크 중 생수를 먼저 주문해 마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선이라고 이해했기 때문이겠군.
- ④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의 미소에 첫눈에 반한 것은 자연적 경향성에 이끌린 것이겠군.
- ⑤ 칸트에 따르면, 갑이 을에게 다가간 것은 감성적 차원의 사랑에서 실천적 차원의 사랑으로 나아간 것이겠군.

40. (가)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인간에게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가 내재되어 있다고 보았다.
- ② (가)의 아퀴나스는 모든 정념이 사랑을 전제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감성적 차원의 사랑은 명령을 통해 일으킬 수 없다고 보았다.
- ③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사랑이 인간에게 도덕법칙을 의무로 부여한다고 보았다.
- ④ (가)의 아퀴나스는 사랑을 욕구와의 관계에 따라 설명하였고, (나)의 칸트는 사랑을 감성적 차원과 실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 ⑤ (가)의 아퀴나스는 인간의 사랑이 자신에게 선인 것에 대한 사랑을 근본으로 한다고 보았고, (나)의 칸트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도덕법칙이 있다고 보았다.

41. 다음 중 ㉠과 ㉡의 의미로 쓰인 예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① [㉠: 경찰이 범인의 뒤를 따랐다.
㉡: 춤으로는 그를 따를 자가 없다.
- ② [㉠: 그는 법에 따라 일을 처리했다.
㉡: 우리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
- ③ [㉠: 개발에 따른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
㉡: 우리 집 개는 아버지를 유난히 따른다.
- ④ [㉠: 아무도 그의 숨세를 따를 수 없었다.
㉡: 그는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었다.
- ⑤ [㉠: 사용 목적에 따라서 물건을 분류했다.
㉡: 나는 강을 따라 천천히 내려갔다.

[42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연히 취한 후에 선판(船板)* 치며 즐기더니
 서북간 일진광풍 홀연히 일어나니
 태산 같은 높은 물결 하늘에 닿았구나
 주중인(舟中人)이 황망하여 조수(措手)할* 길 있을쏘냐
 나는 새 아니니 어찌 살기 바라리오
 밤은 점점 깊어가고 풍량은 더욱 심하다
 만경창파(萬頃蒼波) 일엽선(一葉船)이 끝없이 떠나가니
 슬프다 무슨 죄로 하직 없는 이별인가
 일생일사(一生一死)는 자고로 예사로대
 어복(魚腹) 속에 영장(永葬)함*은 이 아니 원통한가
 부모처자 우는 거동 생각하면 목이 멘다
 죽기는 자분(自分)*하나 기갈(飢渴)*은 무슨 일인가
 명천(明天)이 감동하시어 대우(大雨)를 내리심에
 돛대 안고 우러러서 낙수(落水)를 먹었으니
 갈(渴)한 것은 진정하나 입에서 성에 나네*
 밝으면 낮이런가 어두우면 밤이런가
 오륙일 지낸 후에 원원(遠遠)히 바라보니
 동남간 삼대도(三大島)가 은은히 솟아났다
 일본인가 짐작하여 선구(船具)를 보집(補緝)하니*
 무슨 일로 바람 형세 또다시 변하는가
 그 섬을 벗어나니 다시 못 보리로다
 대양(大洋)에 표탕(飄盪)*하여 물결에 부침(浮沈)*하니
 하늘을 부르짖어 죽기만 바라더니
 선판(船板)을 치는 소리 귓가에 들리거늘
 물결인가 의심하여 황급히 나가 보니
 자 넘는 검은 고기 배 안에 뛰어들다
 생으로 토막 잘라 팔인(八人)이 나눠 먹고
 경각에 끊을 목숨 힘입어 보전하니
 황천(皇天)이 주신 젠가 해신(海神)의 도움인가
 이 고기 아니었으면 우리 어찌 살았으리
 어느덧 시월이라 초사일 아침 날에
 ㉠ 큰 섭이 앞에 뵈나 인력(人力)으로 어찌 하리
 자연히 바람결에 섬 아래 닿았구나

- 이방익, 「표해가(漂海歌)」 -

- * 선판: 배의 갑판.
- * 조수할: 손쓸.
- * 어복 속에 영장함: 고기 뱃속에 장사지냄.
- * 자분: 자기 분수.
- *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
- * 입에서 성에 나네: 입에 성에가 돌을 정도로 차갑네.
- * 선구를 보집하니: 배에서 쓰는 기구를 수리하니.
- * 표탕: 헤매어 떠돌.
- * 부침: 물 위에 떠올랐다 물속에 잠겼다 함.

(나)

나는 책상 위에 지도를 펴놓는다. 수없는 산맥, 말할 수 없이 많은 바다, 호수, 낮은 항구, 숲, 어찌 산만을 좋다고 하겠느냐. 어찌 바다만을 좋다고 하겠느냐. 산은 산의 기틀을 감추고 있어서 좋고 바다는 또한 바다대로 호탕해서, 경솔히 그 우열을 가려서 말할 수 없다. ㉡ 그렇지만 날더러 둘 가운데서 오직 하나만을 가리라고 하면 부득불 바다를 가질 밖에 없다. 산의 웅장과 침묵과 수려함과 초연함도 좋기는 하다. 하지만 저 바다의

방탕한 동요만 하라. 산이 「아폴로」라고 하면 우리들의 「디오니소스」는 바로 바다겠다.

나는 눈을 감고 잠시 그 행복스러운 어족들의 여행을 머리 속에 그려 본다. 해류를 따라서 오늘은 진주(眞珠)의 촌락, 내일은 해초의 삼림(森林)으로 흘러다니는 그 사치한 어족들, 그들에게는 천기예보도 「트렁크」도 차표도 여행권도 필요치 않다. 때때로 사람의 그물에 걸려서 「호텔」의 식탁에 진열되는 것은 물론 어족의 여행실패담(旅行失敗譚)이지만 그것도 결코 그들의 실수는 아니고, 차라리 「카인」의 자손의 악덕 때문이다. 나는 그들이 해저(海底)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정열도 「프랑코」정권을 승인했다는 방송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 나는 동그란 선창(船窓)에 기대서 흡수선(吸水線)*으로 모여드는 어린 고기들의 청초와 활발을 끝없이 사랑하리라. 남쪽 바닷가 생각지도 못하던 「서니룸」에서 씹는 수박 맛은 얼마나 더 청신하랴. ㉢ 만약에 체비같이 재빨거리기 좋아하는 이국(異國)의 소녀를 만날지라도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서투른 외국말로 대담하게 대화를 하리라. 그래서 그가 구경한 땅이 나보다 적으면 그때 나는 얼마나 자랑스러우랴. 그렇지 않고 도리어 나보다 훨씬 많은 땅과 풍속을 보고 왔다고 하면 나는 진심으로 그를 경탄할 것이다.

(중략)

나는 「투리스트·뷔로*」로 달려간다. 술한 여행 안내를 받아가지고 뒤져본다. 비록 직업일망정 사무원은 오늘조차 펍 다정한 친구라고 지녀 본다.

필경 정해지는 길은 말할 수 없이 겸손하게 짧다. 사무원의 책상 위나, 설합 속에 엮보이는 제일 먼 ㉣ 차표가 펍으나 부럽다. 안내서에 붙은 1등 선실 그림을 하염없이 뒤적거린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보스톤·백」과 그리고 단장(短杖)을 기어이 사고 말겠다. 내일(來日)은 그 속에 두어벌 내복과 잠옷과 세수기구와 그리고는 — 「악(惡)의 꽃」과 불란서말 자전거를 집어 놓자. 동서고금의 모든 시집 속에서 오직 한권을 고른다고 하면 물론 나는 이 책을 집을 것이다. ㉤ 그리고는 짧은 바지에 「노타이」로 한 손에는 「보스톤·백」을 드리우고 다른 한 손으로는 단장을 휘휘 내두르면서 차표가 끝나는 데까지 갈 것이다.

㉥ 모든 걱정은, 번뇌는, 울분은, 의무는 잠시 미정고(未定稿)*들과 함께 먼지긴 방안에 묶어서 두고 될 수만 있으면 모든 괴로운 과거마저 잊어버리고 떠나고 싶다. 행장은 경할수록 더욱 좋다.

나는 충고한다. 될 수만 있으면 제군의 배좁은 심장을, 사상을, 파쟁(派爭)을 연애를 잠시라도 좋으니 바닷가에 해방해 보면 어떻냐고 —.

여행(旅行) — 그것 밖에 남은 것은 없다. ㉦ 내가 뺏을 행복의 최후의 예비다. 그것마저 싱거워지면 그때에는 「슈르리엘리스트」의 그 말썽 많던 설문(設問)을 다시 한번 참말 생각해 보아야지.

집이 배좁았다.
 고향이 배좁았다.
 나라가 배좁아진다.
 세계(世界)마저 배좁아지면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

- 김기림, 「여행(旅行)」 -

- * 흡수선: (잔잔한 물에 떠 있는 배의) 선체가 물에 잠기는 한계선.
- * 투리스트·뷔로: 여행자.
- * 미정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원고.

42.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설의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다.
- ④ 동일한 색채어를 나열하여 현장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⑤ 특정 대상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4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경계하는 대상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소망하는 대상이다.
- ③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극복하려고 하는 대상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동화되려고 하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나 글쓴이가 우월감을 갖게 하는 대상이다.

44.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두 대상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신의 선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여행에서의 낯선 상황을 가정하며 자신이 취할 행동을 떠올리고 있다.
- ③ ㉢: 자신이 원하는 여행자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다.
- ④ ㉣: 자신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을 여행지에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여행이 자신에게 지니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바다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 나타난다. (가)의 바다는 화자가 직접 체험하는 공간으로, 예상치 못한 조난을 당한 화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한편, (나)의 바다는 글쓴이가 상상하는 공간이자 자유롭고 생명력 넘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해 글쓴이는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꿈을 꾸게 된다.

- ① (가)에서 ‘선관 치며 즐기’다가 ‘조수할 길’ 없이 ‘일엽선이 끝없이 떠나가’게 된 것을 통해 바다가 예상치 못한 조난을 겪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 ‘어족들이’ ‘오늘은 진주의 촌락’을 다니고 ‘내일은 해초의 삼림’을 다닌다는 것을 통해 바다가 글쓴이에게 자유로운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가)에서 ‘삼대도’를 보자 ‘선구를 보집’하는 것을 통해 화자는 바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나)에서 ‘사치한 어족들이’ ‘해저에 국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글쓴이는 바다를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 ‘어복 속에 영장’할 수 있음에 ‘원통’해하는 것을 통해 바다는 화자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공간으로, (나)에서 ‘어린 고기들’이 ‘청초’하고 ‘활발’하다고 하는 것을 통해 글쓴이가 바다를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선관을 치는 소리’를 듣고 ‘검은 고기’를 먹는 것을 통해 바다는 화자의 생존을 위한 체험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에서 ‘눈을 감고’ 바다의 모습을 ‘머리 속에 그려’ 보는 것을 통해 바다는 글쓴이의 상상이 담긴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